

병리 검체은행에 대한 대한병리학회의 입장

병리의사는 검사 목적으로 얻어진 장기, 생검조직, 체액 및 세포 등의 환자 검체를 이용하여 최종 진단을 내리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리의사는 검체의 감독 관리자로서 진단 자료 및 진단 후 남은 검체를 관리 보관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리의사의 진단에 쓰이고 남은 검체는 추가 검사나, 학생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 및 학문적 연구에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리 검체들이 진단 이외의 교육 및 연구에 이용될 경우에는 윤리적 측면과 안전성 등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미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의 중요한 연구 자원으로 병리검체가 인식되면서 병리검체의 올바른 관리, 보존, 윤리적 및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병리 의사들은 이전부터 신중히 검토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2005년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됨을 기점으로, 기초의학학술대회와 의협 종합학술대회의 장을 빌어 병리 의사로서 환자 보호의 윤리적 측면과 운용방안을 검토하고, 병리 검체 은행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환자 혹은 병리 부검에서 검사 목적으로 채취한 검체는 병리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는 진단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다른 이유로 검체의 일부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정확한 진단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환자 치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환자의 존엄성, 환자의 인권 및 환자의 이익에 대한 존중으로서, 병리 의사로서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병리검체를 이용한 연구/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구/교육 실시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 내부의 규칙을 정하기 바랍니다.

병리의사는 병리 진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용 조직검체은행을 운영하며, 윤리적 측면 및 검체 보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3. 병리의사는 연구용 병리 검체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병리의사는 병리 검체를 이용한 연구가 정당하게 진행되도록 감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여 정확한 학문 연구가 되도록 실무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4. 환자의 진단과 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병리 검체 관리의 감독 책임자인 진료기관장은 병원 내에 병리 검체 은행을 설치하고 시설과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연구용, 이식용 조직은행 및 유전자은행을 포함하는 보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5. 정확하고 원활한 병리 진단과 병리 검체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리의사에 대한 확고한 사회적 인식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조직검체은행 운영에 대한 병리학회의 입장을 여러 의학자, 연구자, 교육자 및 관계자들에게 천명하면서, 병리 의사의 진료, 교육 그리고 연구에 대한 순수성과 열의를 깊이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년 5월 13일
대한병리학회이사장 강창석